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

－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을 중심으로 －

2026121033

불교학과 이현숙

I. 서론

II.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

III.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

IV. 표상 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

V. 결론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을 비교하여, 두 문헌이 모두 표상 분별과 집착이 걷힌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앎의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깨왓다경』에 나타나는 *viññāṇa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 곧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을 비교하여, 양자(兩者)가 표상 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구조를 공유하는지를 검토한다. 초기 불교에서 ‘식(識)’은 일반적으로 연기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명색과 상호 의존하는 인식 작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깨왓다경』의 결론부에서 말하는 ‘빛나는 의식’은 사대와 명색,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분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지평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건적 식과 구분된다.

한편,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一味觀行은 중생이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一心의 本覺으로 돌아가는 수행으로 이해된다. 一味觀行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상대적 분별과 집착을 넘어 본래 청정한 마음의 지평을 드러내는 수행론적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은 교리사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뇌와 표상적 분별이 걷힌 자리에서 청정한 앎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기 불교와 원효 사상을 표상 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인식 지평의 현현이라는 공통 문제의식 속에서 양자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원효의 一味觀行이 서로 다른 교학적 맥락 속에서도 ‘청정광명심’이라는 동일한 수행론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깨왓다경』, 빛나는 의식, 『금강삼매경론』, 원효, 一味觀行, 本覺, 청정광명심

I. 서론

불교에서 열반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열반은 오히려 대상을 실체적으로 붙잡는 인식 방식, 곧 표상분별과 집착이 소거되는 사건과 관련된다. 초기 불교에서 식(識, *viññāṇa*)은 일반적으로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명색(*nāma-rūpa*)과 상호 의존하면서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인식 작용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깨왓다경』의 결론부에 나타나는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 곧 “드러나지 않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밝은 식”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조건적 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¹⁾

이 구절은 사대(四大)와 명색, 그리고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분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국면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이 어떤 실체적 주체나 영혼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조건적 식의 작용이 그치는 자리, 다시 말해 대상화와 표상적 분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평을 특수한 언어로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주2] 따라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은 일반적 인식 작용으로서의 식이 아니라, 조건적 인식 구조가 해체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앎의 지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一味觀行이라는 수행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一味觀行은 중생이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一心의 本覺으로 돌아가는 수행으로 이해된다. 최지송은 『금강삼매경론』의 핵심 주제를 一味 또는 그 실천행인 一味觀行으로 보며, 一味觀行을 중생이 상대적 집착의 세계에서 벗어나 一心으로 귀원하는 수행으로 설명한다.[주3] 이 점에서 一味觀行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이 소거된 자리에서 本覺이 드러나는 수행론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을 비교하여, 두 문헌이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양자는 서로 다른 교학적 맥락에 속한다. 『깨왓다경』은 초기불교의 열반 이해와 조건적 식의 중지라는 문맥 안에서 읽혀야 하며, 『금강삼매경론』은 대승불교의 一心·本覺·如來藏 사상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문헌은 모두 분별과 집착이 걷힌 자리에서 청정한 앎이 드러난다는 수행론적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깨왓다경』의 *viññāṇa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가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명색과 표상분별의 중지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을 중심으로, 아집·법집의 소거와 本覺의 드러남이라는 수행 구조를 정리한다. IV장에서는 두 문헌을 비교하여,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공통 구조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원효의 회통 정신과 붓다 가르침의 보편적 수행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한다.

1) 이현숙, 「깨왓다경의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 연구 - 識과 涅槃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1쪽. DN 11의 원문은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

II.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

1. viññāṇa anidassana의 의미

『깨왓다경』의 결론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표현은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라는 뜻이다.²⁾ 이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식(識, viññāṇa)이 세 가지 특수한 수식어, 곧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와 결합하여 제시된다는 점이다.

초기 불교에서 식은 일반적으로 연기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 작용으로 이해된다. ‘식’은 명색과 상호 의존하면서 경험 세계를 구성하고, 대상에 대한 분별과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깨왓다경』의 해당 구절에서 식은 단순히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인식 작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볼 수 없음”, “무한함”, “모든 곳에서 빛남”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통상적 인식 구조와 구분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먼저 ‘anidassana’는 ‘볼 수 없음’ 또는 ‘표상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를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하다. 『깨왓다경』의 결론부는 감각적 가시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대와 명색, 그리고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분별 범주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anidassana는 어떤 대상처럼 지시되거나 표상될 수 없는 인식 지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ananta’는 ‘무한함’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한함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장단, 크고 작음,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상대적 분별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ananta는 분별적 경계 설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국면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sabbato pabha’는 “모든 곳에서 빛남”이라는 뜻이다. 이때 ‘빛남’은 물리적 광휘나 감각적 밝음을 뜻하기보다는, 분별과 무지가 걷힌 자리에서 드러나는 인식적 명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불교 문헌에서 ‘밝음’이나 ‘광명’은 ‘지혜와 통찰’의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깨왓다경』의 “모든 곳에서 빛나는 식” 역시 특정한 빛의 현상이 아니라, 대상화와 분별이 해체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앎’의 지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³⁾

따라서 ‘빛나는 의식’은 일반적인 조건적 식과 동일한 층위의 식을 말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식이 작동하던 표상·분별·무지의 구조가 해체된 국면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빛나는 의식’은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라기보다, 대상화가 멈춘 자리, 즉 인식의 전환을 통해 드러나는 무분별의 청정한 인식 지평을 가리킨다.

2)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은 『디가 니까야』 제11경 「깨왓다경」 결론부에 나오는 표현이다. 필자는 석사논문에서, 이 구절을 “드러나지 않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밝은 식”으로 옮기고, DN I 223을 원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으로 표현한다. 번역상의 문제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본의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3)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는 각각 독립된 성질을 나열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니라, 식이 가리키는 국면을 통상적인 조건적 인식 구조로부터 구분해 주는 표지로 기능한다. 특히 sabbato pabha는 물리적 밝음이 아니라 대상 분별이 정지된 국면에서의 인식적 명징성 또는 투명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명색과 표상 분별의 중지

『깨왓다경』에서 이 구절은 단독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대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붓다의 응답 속에서 등장한다. 처음 질문은 “어디에서 이 네 가지 대중, 곧 지·수·화·풍의 요소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는 형식으로 제기된다.⁴⁾ 그러나 붓다는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제시한다.

붓다는 “어디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이 발붙이지 못하며, 어디에서 길고 짧은 것, 미세한 것과 거친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이 그치며, 어디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중지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⁵⁾ 이 질문의 수정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질문은 사대가 소멸하는 장소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붓다의 수정된 질문은 특정한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과 분별 범주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을 묻는다.

여기서 사대는 물질적 세계의 기본 요소를 의미한다. 장단, 조추, 미추는 세계를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분별 범주를 뜻한다. 그리고 명색은 의식 경험을 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대와 분별 범주, 명색이 중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 요소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대상화하고 구분하며 붙잡는 인식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원문의 ‘na gādhati’와 ‘uparujjhati’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na gādhati는 “발붙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대가 더 이상 성립할 근거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uparujjhati는 “중지된다” 또는 “그친다”는 뜻으로, 명색으로 구성된 인식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나타낸다.⁶⁾ 따라서 『깨왓다경』의 결론부는 사대·분별 범주·명색이 순차적으로 중지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의 소멸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중지된다”는 마지막 구절은 조건적 인식 구조의 종식을 말한다.⁷⁾ 이때 소멸하는 식은 명색과 상호 의존하며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적 식이다. 그러나 같은 계송의 앞부분에서 “드러나지 않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식”이 제시된다는 점은, 이 구절이 단순한 소멸의 언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깨왓다경』은 조건적 식의 종식을 말하면서도, 그 종식이 성립하는 국면을 ‘빛나는 식’이라는 특수한 표현으로 지시한다.⁸⁾

따라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은 명색과 표상 분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건적 식의 연속이 아니라, 조건적 식이 구성하던 대상화와 분별의 질서가 그친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사대는 발붙이지 못하고,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4) 「깨왓다경」에서 처음 제기되는 질문은 “어디에서 이 네 가지 대중, 곧 지·수·화·풍이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는 형식이다. 이는 사대의 소멸 장소를 묻는 방식이지만, 붓다는 이 질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질문의 방향을 수정한다.

5) 붓다는 질문을 “어디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이 발붙이지 못하며, 어디에서 장단·미추가 그치고, 어디에서 명색이 남김없이 중지되는가”라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수정은 논의의 초점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경험 세계를 성립시키는 조건의 중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6) na gādhati를 사대가 더 이상 조건적 기반 위에서 성립하지 못하는 상태로, uparujjhati를 명색으로 구성된 인식 구조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7) 「깨왓다경」의 계송은 “식의 소멸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중지된다.”라고 말한다. 필자의 석사논문에서는, 이 표현을 조건적 식의 종식을 설명하는 언어와 그 종식이 성립하는 국면을 지시하는 언어가 하나의 담화 구조 안에 함께 배치된 것으로 분석한다.

8) 이현숙의 논문, 60쪽. 해당 논문은 이 표현이 열반은 실체적이거나 지속적인 의식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선정 상태에 대한 시적 묘사로 축소될 수도 없다고 정리한다.

범주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명색 또한 남김없이 중지된다. 이 점에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은 열반을 단순한 무나 공백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실체적 의식으로 고정하지 않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조건적 식의 소멸을 말하면서도, 그 소멸이 성립하는 청정한 인식 지평을 지시한다. 즉 이 표현은 “의식의 영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적 의식이 중지된 자리에서 드러나는 비표상적 앎의 가능성을 가리킨다.

Ⅲ.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

1. 一味觀行의 의미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핵심이 되는 수행론적 개념은 一味觀行이다. 一味는 문자 그대로 “한 맛”을 뜻하지만, 여기에서 한 맛은 단순히 여러 교설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진과 속, 유와 무, 주체와 대상, 깨달음과 중생의 분별이 상대적 대립으로 고정되지 않는 지평을 가리킨다. 곧 一味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무차별의 상태라기보다,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들이 본래 둘이 아님을 통찰하는 깨달음의 지평이라고 할 수 있다.⁹⁾

觀行은 이러한 一味를 관찰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뜻한다. 원효에게서 觀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과 주체를 나누어 붙잡는 분별을 넘어, 법의 참모습을 직관하는 수행적 통찰이다. 또한 行은 그러한 통찰이 실제 수행과 삶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一味觀行은 이론적 이해에 머물지 않고, 분별과 집착을 비워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수행 구조를 가리킨다.

『금강삼매경론』에서 一味觀行은 一心과 本覺의 구조 안에서 이해된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아집과 법집을 일으키고, 능취와 소취의 분별 속에서 세계를 대상화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은 본래 一心이며, 그 一心의 본성은 本覺이다. 그러므로 一味觀行은 중생이 새롭게 어떤 깨달음을 만들어 내는 수행이라기보다, 무명과 분별에 가려진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여기서 觀은 대상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일반적 인식 작용이 아니다. 觀은 心體를 통해 보는 것이며, 경계와 지혜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작동하는 통찰이다. 行 또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因과 果를 관통하는 수행의 전 과정이다. 따라서 一味觀行은 觀과 行, 境과 智, 因과 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수행 구조를 뜻한다.

이 점에서 一味觀行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비교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제공한다.

9) 최지승은 『금강삼매경론』의 핵심 주제를 一味 또는 一味觀行으로 보고, 一味觀行을 중생이 상대적 집착의 세계에서 벗어나 一心으로 귀원하는 수행으로 설명한다. 특히 관행의 주체를 一心如來藏體, 관의 경지를 法身の 本覺으로 정리한다.

10) 고영섭, 「분향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반야 중관의 이제설과 유가 유식의 삼성설의 一味적 通攝: 『기신론소』 ‘一心’과 『삼매경론』 ‘本覺’의 유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 『불교철학』 제7집, 2020.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일미’는 시각과 본각이 하나의 맛인 동일미이자 평등일미이며, 일심과 본각이 같은 일각미로 연표된다. 또 일각은 시각과 본각이 본래 평등하고, 시각이 원만하면 본각과 같아져 본각과 시각이 둘이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깨끗다경』의 viññāṇa anidassana가 명색과 표상 분별이 발붙이지 못하는 지평을 가리킨다면, 원효의 一味觀行은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一心의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교학적 문맥에 속하지만, 분별이 걸린 자리에서 청정한 앎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2. 아집·법집의 소거와 本覺의 드러남

一味觀行의 구체적 내용은 아집과 법집의 소거로 설명될 수 있다. 아집은 ‘나’라는 주체를 실체적으로 붙잡는 집착이며, 법집은 인식되는 대상이나 법을 고정된 실체로 붙잡는 집착이다. 이 두 집착이 작동할 때, 인식은 주체와 대상을 나누고, 세계를 취하거나 버릴 대상으로 파악한다. 원효가 一味觀行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원적 분별 구조이다.

『금강삼매경론』의 수행론에서 무상관과 무생행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무상관은 모든 상을 실체로 붙잡지 않는 관찰이다. 이는 대상의 형상뿐 아니라,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의 상까지 비우는 수행이다. 무생행은 더 나아가 관찰한다는 마음 자체도 생겨나는 것으로 붙잡지 않는 수행이다. 곧 수행자는 대상의 상을 비울 뿐 아니라, 그 대상을 비우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마저도 고정하지 않는다.¹¹⁾

이러한 수행 구조는 아집과 법집의 소거와 직접 연결된다. 아집이 소거될 때, ‘나’라는 주체가 대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는 분별이 약화된다. 법집이 소거될 때, 대상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분별이 사라진다. 이때 능취와 소취의 구분도 함께 해체된다. 능취는 대상을 취하는 주체이고, 소취는 취해지는 대상이다. 一味觀行은 이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주체와 대상이 대립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지평을 드러낸다.

이처럼 아집과 법집이 소거될 때 드러나는 것이 本覺이다. 本覺은 수행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무명과 분별에 의해 가려져 있던 깨달음이다. 따라서 本覺의 드러남은 어떤 새로운 실체의 획득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이 걸린 자리에서 본래의 청정한 앎이 현현하는 사건이다.

이 점에서 원효의 一味觀行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이나 심리적 안정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一心의 本覺이 드러나도록 하는 수행이다. 이러한 구조는 『깨끗다경』에서 명색과 표상 분별이 중지된 자리에서 “빛나는 식”이 언급되는 방식과 비교될 수 있다. 두 문헌 모두 조건적이고 분별적인 인식 구조가 소거되는 지점에서, 청정한 앎의 지평이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11) 김호귀는 『금강삼매경론』의 선수행론을 각 품의 차제에 따라 정리하면서, 무상법품은 분별상이 없는 관찰을 설명하고, 무생행품은 관찰하는 마음마저도 일으키지 않는 수행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든 분별상을 없애더라도 관찰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本覺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관찰하는 마음의 발생까지 비워야 한다고 정리한다.

IV.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앞

1. 표상 분별의 소거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은 서로 다른 교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깨왓다경』은 초기불교의 맥락에서 열반의 지평을 설명하고 있으며, 『금강삼매경론』은 대승불교의 일심·본각 사상을 바탕으로 수행의 구조를 해명한다. 그러나 두 문헌은 공통적으로 표상분별의 소거라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깨왓다경』에서 viññāna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는 사대와 명색,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분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자리에서 제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세계가 단순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분별하고 대상화하는 인식 구조가 중지된다는 점이다. 곧 ‘긴 것과 짧은 것’, ‘미세한 것과 거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라는 구분은 모두 표상적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가 중지된다는 것은 대상 세계를 분별적으로 붙잡는 인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一味觀行은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一心의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이다. 아집은 ‘나’라는 주체를 실체적으로 붙잡는 집착이고, 법집은 대상과 법을 고정된 실체로 붙잡는 집착이다. 이 두 집착이 작동할 때 인식은 주체와 대상을 나누고, 세계를 취하거나 버릴 대상으로 파악한다. 一味觀行은 이러한 분별 구조를 해체하여, 주체와 대상이 대립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지평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 『깨왓다경』의 명색 중지와 『금강삼매경론』의 능소분별 소거는 구조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깨왓다경』은 조건적 인식 구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지평을 말하고, 『금강삼매경론』은 아집·법집과 능취·소취의 분별이 비워지는 수행을 말한다. 양자는 모두 해탈과 깨달음을 어떤 새로운 대상의 획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화하고 분별하며 집착하는 인식 방식이 중지되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2. 청정한 앞의 드러남

그러나 두 문헌은 단순히 분별의 소멸만을 말하지 않는다. 분별이 걷힌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앞의 지평을 함께 제시한다.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식은 일반적인 조건적 식처럼 명색과 상호 의존하며 대상 세계를 구성하는 식이 아니다. 그것은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표상될 수 없고, 상대적 한정에 묶이지 않으며, 분별과 무지가 걷힌 자리에서 드러나는 인식적 명징성을 가리킨다.

이때 ‘빛남’은 감각적 밝음이 아니라, 분별이 중지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앞의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은 대상화된 의식이나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조건적 식의 구조가 멈춘 자리에서 드러나는 비표상적 인식 지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원효의 一味觀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정한 앎이 드러난다. 一味觀行은 단순히 분별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분별에 가려져 있던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이다. 本覺은 수행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무명과 집착에 의해 가려져 있던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一味觀行에서 本覺이 드러난다는 것은 새로운 실체를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이 걷힌 자리에서 본래의 청정한 앎이 현현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원효의 一味觀行은 모두 “소거”와 “드러남”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명색, 사대, 상대적 분별, 아집, 법집, 능소분별이 소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소거의 자리에서 빛나는 식, 本覺(본각), 청정한 앎의 지평이 드러난다. 따라서 두 문헌의 핵심은 단순한 부정이나 소멸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분별적 인식의 구조가 해체될 때 드러나는 청정한 인식의 현현에 있다.

3.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

이상의 논의를 통해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은 구조적으로 비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깨왓다경』에서는 사대와 명색,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분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자리에서 *viññāṇa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가 제시된다. 반면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이 소거될 때 一心의 本覺이 드러난다. 양자는 서로 다른 교학적 배경에 속하지만,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수행론적 구조를 공유한다.

론 두 개념을 교리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깨왓다경』은 초기불교의 열반 이해 안에서 조건적 식과 명색의 중지를 설명하는 문맥에 놓여 있으며,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은 원효의 일심·본각 사상과 대승적 수행론 안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두 문헌의 비교 가능성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붓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시대와 사상적 언어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점에서 원효의 회통 정신은 본 논문의 비교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회통은 서로 다른 가르침을 단순히 하나로 섞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흐르는 근본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은 역사적 배경과 교학적 체계는 다르지만, 모두 분별과 집착이 걷힌 자리에서 청정한 앎이 드러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이 특정 시대나 사상 체계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수행론 속에서 그 본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이라는 두 문헌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두 문헌은 모두 해탈과 깨달음을 새로운 실체의 획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별과 집착이 걷힌 자리에서 청정한 앎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은 명색과 분별이 발붙이지 못하는 비표상적 인식 지평을 가리키며, 원효의 一味觀行은 아집과 법집을 비워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 구조를 보여준다.

비교	깨왓다경	금강삼매경론
수행 대상	명색	아집, 법집(중생의 근본)
제거 대상	표상분별(명색의 집착, 이분법적 사고)	능소분별(능취, 소취의 집착)
수행 방법	명색 관찰 → 의식 작용의 중지	五空, 三空을 거쳐 一味觀行
핵심 내용	비표상적 의식: 빛나는 의식	분별없음 → 본각의 드러남
궁극적 결과	열반	本覺, 一心 (청정광명심)
공통점	분별의 소거를 통해 청정한 앎이 드러남	

[대응 비교표]

V. 결론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식’과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一味觀行을 비교하여, 두 문헌이 표상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깨왓다경』에서 viññāṇa anidassana ananta sabbato pabha는 사대와 명색, 장단·조추·미추와 같은 상대적 분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자리에서 제시된다. 이는 일반적인 조건적 식의 작용이라기보다, 표상적 분별이 중지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인식 지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一味觀行은 아집과 법집, 능취와 소취의 분별을 비워 一心의 本覺을 드러내는 수행으로 설명된다. 一味는 단순히 여러 교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진과 속, 유와 무, 주체와 대상의 대립이 고정되지 않는 한 맛의 깨달음을 뜻한다. 따라서 一味觀行은 분별과 집착을 넘어 본래 청정한 마음의 지평이 드러나는 수행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원효의 회통 정신과도 연결된다. 회통은 서로 다른 가르침을 무리하게 하나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흐르는 근본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깨왓다경』과 『금강삼매경론』은 서로 다른 시대와 교학적 배경 속에서 성립하였지만, 분별과 집착의 소거, 그리고 청정한 앎의 현현이라는 점에서 붓다 가르침의 핵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깨왓다경』의 빛나는 의식과 원효의 一味觀行이 표상 분별의 소거와 청정한 앎의 드러남이라는 수행론적 구조를 공유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열반과 깨달음은 단순한 의식의 소멸이나 공허한 정지가 아니라, 분별과 집착이 소거된 자리에서 청정한 인식 지평이 현현하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붓다의 가르침은 특정한 시대나 사상 체계에 갇히지 않고,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과 교학적 언어 속에서도 그 본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元曉, 『金剛三昧經論』.

『長部(Dīgha Nikāya)』 11 「Kevaddha Sutta」(DN I 223).

고영섭, 「元曉 一心의 神解性 분석」, 『불교학연구』 제20호, 2008.

이현숙, 「『깨왓다경』의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 연구
－ 識과 涅槃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6.

고영섭,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반야 중관의 이제설과 유가 유식의 삼성설의 一味적 통섭: 『기신론소』 ‘一心’과 『삼매경론』 ‘本覺’의 유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 『불교철학』 제7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0.

김호귀, 「『금강삼매경론』의 선 수행론 고찰」, 『불교학보』 제58집, 2011.

최지승, 「元曉의 一味觀行」, 『철학논총』 제45집, 새한철학회, 2006.